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KIA 새내기 4인방이 5일 일본 스프링캠프 실내 연습장에서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중, 오준형, 이호신, 김연훈.

새끼호랑이들 발톱 세웠다

신인 양현중·오준형·이호신·김연훈
선배들과 양보없는 주전경쟁 구슬땀



일본 전지훈련에 한창인 KIA선수단이 6일 오전 아미사타 트레이닝 코치(맨앞)와 함께 훈련장 주변 산을 오르고 있다.

“막내들이 잘 해주니까 좋네.”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 캠프를 지휘중인 서정환 KIA 감독은 요즘들어 연신 싱글벙글이다.

김연훈(23·내야수)과 이호신(23·외야수), 오준형(24), 양현중(20·이상 투수) 등 새내기 4인방의 기량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피’의 급성장은 선배들에게도 자극제가 돼 선의의 내부 경쟁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있다.

이호신은 미야자키 캠프에서 ‘제 2의 이용규’로 통한다.

조그마한 체격은 물론 타격, 수비, 스피드, 선구안, 그리고 번트와 히트 앤드 런 등 작전수행능력 등 모든 면이 이용규와 판박이다.

이 때문인지 발목 부상으로 5일부터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외야수 이용규도 긴장의 눈빛이 역력하다.

이건열 타격코치는 “(이)용규는 검증된 최고의 타자지만, 그래도 라이벌의 성장이 신경 쓰인 듯 강한 승부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전에 용규를 만나 ‘호신이 너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며 현장의 뜨거운 경쟁 분위기를 전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주전 경쟁이 예상되는 내야 수비진도 신인 김연훈의 깜짝 등장으로 포지션 경쟁전이 무르익고 있다.

2007년 신인 2차 2번인 김연훈은 일본 스프링 캠프 합류 이후 코칭스태프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서 감독은 “이번 신인중에서 김연훈이 가장 눈에 띈다”면서 “안타 제조능력도 좋고 수비도 안정돼 잘만 다들으면 물건이 하나 나올 것 같다”며 흐뭇해 했다.

또 마운드에선 오준형과 양현중이 올 시즌 1군 엔트리 합류를 위해 선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구력 좋은 변화구가 주무기인 양현중은 요즘 자신의 최대 약점인 140km 초반대의 직구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7년도 신인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우완 오준형도 145km대의 직구(평균 138~141km)와 수준급인 슬라이더를 연마하며 김진우, 한기주 등 스타급 선배들과 기량 겨루기에 한창이다.

김봉근 투수코치는 “신인 투수의 경우 실전과 훈련의 기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 평가하긴 힘들다. 하지만 이들 두명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면서 “열심히만 한다면 언제든지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lucky@kwangju.co.kr



빛나는 노장 투혼

6일 안산외동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신한은행 전주원(가운데)의 돌파를 우리은행 김은경(왼쪽)이 운몸으로 막고 있다. 신한은행이 61-58로 승리. /연합뉴스



“시즌 3번째 톱10 도전”

최경주 9일 PGA 페블비치 내셔널프로암 출전

‘스코츠데일의 징크스’를 넘지 못한 ‘탱크’ 최경주(나이카골프)가 ‘늑대와 춤을’ 춘 페블비치에서 3년만에 ‘톱10’ 입상에 도전한다.

오는 9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페블비치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내셔널프로암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2004년 이곳에서 사흘 내내 선두권을 달리다 공동4위라는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다.

대회는 페블비치골프링크스(파72·6천816야드), 포히힐스골프코스(파72·6천833야드), 스파이그래스힐골프코스(파72·6천858야드) 등 3개 코스에서 1~3라운드를 치른 뒤 상위 60명만 추려 페블비치골프링크스에서 최종 라운드를 갖는 독특한 방식으로 열린다.

특히 1~3라운드에서는 배우나 가수, 뮤지션, 그리고 아메리칸풋볼 스타 플레이어 등 이른바 ‘명사’들과 프로 선수들이 짝을 이뤄 함께 플레이하는 프로암 형식으로 유명한 대회이기도 하다.

최경주는 2004년 대회 때 ‘늑대와 춤을’으로 이름을 날린 영화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 그리고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케니 지와 동반 라운드를 치르면서 1라운드 공동 4위, 2라운드 공동9위, 3라운드 공동7위를 달렸다.

당시 함께 플레이를 펼친 코스트너와 케니 지에게 “대단한 선수”라는 찬사를 받았던 최경주는 이후 한국 공연도 자주 개최한 케니지와 친분이 쌓였다.

5일 애런 배틀리(호주)의 우승으로 끝난 FBR오픈에서 이상하리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는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컷오프를 당한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시즌 세 번째 ‘톱10’ 입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대회장에서 멀지 않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다닌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낭자들 ‘유럽정상’ 재도전

신지애·박희영 등 14명

내일 ANZ 마스터스 참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호주 원정대’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대회에 2주 연속 도전한다.

신지애(19·하이마트)와 박희영(20·이수건설), 최나연(20·SK텔레콤) 등 국내와 13명과 호주교포 양희영(18·삼성전자)은 8일부터 11일까지 총상금 48만유로를 걸고 호주 골드코스트 로열파인스리조트(파72·6천443야드)에서 열리는 ANZ레이디스마스터스에 출전한다.

특히 작년 이 대회에서 LET 투어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수립한 뒤 무려 최연소 회원이 돼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양희영이 타이를 방어에 나선다.

지난주 LET 투어 개막전인 MFS호주여자오픈에 출전했던 한국 선수들은 낮선 코스

조건과 까다로운 그린에 고전해야 했다.

이 대회에서 ‘여자 백상어’ 카리 웹(호주)이 큰 타수 차로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은 3명이 ‘톱10’에 들었으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다.

2라운드까지 공동 4위를 유지했던 양희영은 3라운드에서 갑자기 무너지는가 하면 3라운드 내내 10위권을 맴돌던 신지애는 마지막 뒷날 투수를 줄여나갔지만 선두를 따라잡기에는 버거웠다.

이번에 상대해야 할 선수들도 만만찮다. 웹이 대회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리는 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실력파 크리스티 커(미국)가 출전하고, 나탈리 걸비스(미국)와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도 2주 연속 나온다.

MFS호주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웨이윤제(대만)와 작년 LET 신인왕 니키 가렛(호주) 등 호주의 ‘영과워’들도 무시 못할 우승 후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일본 중학생 히로야 K-1 데뷔 TKO승

일본의 한 중학생이 일본 종합격투기 대회인 K-1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 화제다.

6일 일본 스포츠 일간 ‘스포츠호치’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히로야(15)는 전남 일본 도쿄에서 열린 ‘K-1 월드맥스 2007’ 특별 경기에서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인 다카하시 아키히로(21)를 상대로 3회 2분45초 만에 TKO로 이겼다. 출전 나이를 제한하지 않는 K-1 대회에 중학생이 출전하기는 이번이 처음.

주최측의 배려로 헤드 기어와 큰 글러브를 착용하고 링 위에 오른 히로야는 초반부터 로우키(하단차기)으로 주도권을 잡아 2회 첫라운을 빼앗은 뒤 마지막 회 왼손 흑을 다카하시의 턱에 적중시키자 상대 편에서 타일을 던져 기권을 표시했다.